

# 국립공원 방문객 특성을 이용한 핵심수요시장연구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Core Demand Market by Visitor's Characteristics of Mountain Types of a National Park  
-focused on Demographic and Social Economical Factors-

곽강희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Gang-Hee Gwak(avenue@tu.ac.kr)

## 요약

본 연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공원방문객 수요증진을 위한 마케팅전략차원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모형설정이 중요하다. 이른바 종속변수가 이산확률분포를 가진 이산형 변수일 경우, 연속확률분포의 자료 분석에 적합한 회귀모형을 설정한다면 추정치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포아송모형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자료의 특성이 과산포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모델로 음이항 포아송모형을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수요자의 연령, 직업, 방문선호계절, 동반유형, 주 5일 근무제 그리고 선호관광형태 등이 방문객 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주요영향변수들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측에 핵심시장에 대한 특성과 그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 방문객특성 | 사회경제학적 요인 | 핵심수요시장 |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offer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demand increase on marketing strategy level by investigating Mudeungsan visito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economical variables. To accomplish this study, the proper analyzing model needs to be applied because a grave error of parameters will be led if regression model appropriate for analyzing the data of a continuous probability variable is applied, in case that dependent variable is a discrete random variable which have a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Therefor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oisson model. However, as the data was showing an overdispersion, parameter was estimated with the Binomial Poisson model able to cover the problem. As a result, some explanatory variable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such as visitor's age, occupation, preferred season to visit, type of company, five days working, and preferring type of tourism. Author could offer to the national park the information about characteristics of core market revealed and marketing strategy for it, based on those influential variables

■ keyword : | Characteristics of Visitors | Social Economical Factors | Core Demand Market |

## I. 서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살펴 보면, 현재까지 총 20곳이 지정되어 그것들의 점유면적은 6,580,821km<sup>2</sup>에 이르고 있으며 전 국토면적의 6.58%[1]의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립공원들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공원들로서 1967년 12월 지리산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래 1988년에 변산반도와 월출산이 마지막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자연보호추진에서 볼 때, 이러한 국립공원의 지정은 매우 긍정적인 수 있지만 자연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광관련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딜레마는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은 이용, 즉 지속가능성을 기반 하여 국립공원 방문객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 두 관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소득수준과 여가시간의 증대 및 접근성 향상 등으로 국립공원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다양한 생태보전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대안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방문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참여하게 됨으로 관광 동기는 방문객들의 관광행동을 이해하거나 관광지 선택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3].

그러나 방문객의 가치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또한 중요하지만,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원적 연구는 다름 아닌 수요자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지속가능성 내에서 선택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측은 방문객의 수용력확보는 물론, 관광지의 자체적 매력향상과 더불어 방문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객 개인들의 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고찰

### 1.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학적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학적 변인은 소비자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영향요인으로서, 모든 관련연구에서, 특히 계량경제모델이 활용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변인이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관광행태는 관광이라는 하나의 무형적이고 가시적인 속성을 지닌 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보여 지는 정신적·육체적 행동과정이며, 인구통계학적요인, 사회적이인(가정 및 생활양식, 준거집단, 사회계층, 문화 및 하위문화), 심리적요인(동기, 학습, 성격, 태도) 그리고 관광지 특성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최승열·최종탁).

또한 대부분의 수요모형설정이 요구되는 연구에서는 특정목적지의 잠재수요자 및 실질 수요자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마케팅에 적용시킴으로써 미래수요증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제공차원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이 변인들은 다양한 목적의 수요모델에서 설명변수로 이용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소국섭, 이희찬[4]은 골프이벤트 방문수요에 관한 연구에서 프로골프토너먼트의 갤러리들의 개인특성을 모형에 투입하여 그 결과를 논의 하였으며, 이승길, 김현, 유창근[5]은 축제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장에서 그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계량경제 수요모형 중의 하나인 Tobit 모형을 설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또한 광강희, 유창근[6]은 스포츠레저 전시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수요연구에서 본 연구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산형일 때 설정될 수 있는 모델로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고 방문객들의 구매의사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또한 광강희, 소국섭[7]은 카지노 관련 연구에서 카지노 방문객들의 태도를 조사함에 있어서, 서열프로빗모형을 설정하고 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비자 행태에 관련한 많은 수요연구들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사회경제학적 변인들이 특히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수요모델을 설정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회과학연구의 일반적인 형태인 가설검증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을 기준으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이용한 시장세분화 및 차이검정연구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장준호[8]는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변인 중의 하나인 거주지역(인근/비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차이분석을 하였다. 연분홍, 오세이[9]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학력)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계량경제수요모형과 가설검증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 2. 방문수요모형

계량경제모형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의 높은 효용성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평가되고 활용되고 있다지만 관광학 분야에서는 특정 연구자들[10-13]에 의해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효용성은 다소 제한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량경제수요모형은 종속변수가 '0'과 양의정수로 이루어 졌을 때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산형('0'과 '1')일 경우에는 로짓모형과 프로빗 모델이 설정되며, '0'을 포함한 서열정수(0, 1, 2, 3, 4, 등)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서열 프로빗 모델이 선택된다.

그러나 비록 정수일지라도 방문횟수와 같은 경우에는 포아송 모형이 설정되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0'을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표준포아송모형을 그리고 '0'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단된 포아송모형을 설정해야 한다. 부연하면, 표준포아송과 절단된 포아송모형을 선택은 자료수집방법에 의해 구분되는데, 현장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표준포아송, 연구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면 절단된 포아송모형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포아송 수요모형은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음이항포아송, 영과잉 포아송, 영과잉 음이항포아송모형[14], 등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가 지출금액과 같이 확률밀도함수를

가정한 정수일 경우에는 토빗모형[15]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무응답자들 또한 지출의지가 있으나 다만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0'으로 처리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도 종속변수가 2집단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선택모형(MNL)을 설정해야 하는데, 주로 시장세분화 결정요인을 추정할 경우 애용되고 있다.

부연하면, 과거에는 종속변수가 가산자료일 경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 대체로 OLS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Allison[16]은 높은 왜도를 보이는 범주형 자료일 경우에는 포아송모형의 설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였다. 관련문헌을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 주로 사슴사냥[17] 하이킹[18], 보팅[19], 산악바이크[20] 등의 수요연구에 이용되었으며,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골프수요[21], 전시 관람수요[22]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자에 있어서 비록 제한적일지 몰라도 많은 연구 논문들이 위와 같은 수요모형 설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III. 연구 설계

### 1. 모형설정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수요모형은 자료의 특성 즉,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경우에는 절단된 포아송(Truncated Poisson: TP)모형의 설정이 요구되지만, 이때 자료가 과산포(overdispersion)를 보일 경우, 보다 적합한 모델로 음이항 포아송(Truncated Negative Binomial poisson: TNB))의 설정이 불가피하다.

#### 1.1 절단된 포아송모형(TP)의 설정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응답자의 자료가 '0'에서 절단된 경우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는 확률밀도함수를 자료  $y$ 가 '0'보다 클 확률 즉,  $\Pr(y > 0)$ 로 나누어주면 된다. '0'에서 절단된 포아송 분포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Pr(Y = y | Y > 0) = \frac{e^{-\lambda} \lambda^y}{y! (1 - e^{-\lambda})}, \quad y = 1, 2, 3, \dots$$

여기에서  $\lambda$ 는 이 분포의 평균이면서 동시에 분산이고 '0'보다 큰 값을 갖는다.

$$E(Y) = \lambda = \exp(X\beta) = \text{var}(Y)$$

### 1.2 절단된 음이항 포아송 모형(TNB)의 설정

하지만 자료가 과산포를 보일 경우에는 발생된 편의 [23]를 고려해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적절한 절단된 음이항 포아송모형의 설정이 요구된다.

$$\Pr(Y = y | Y > 0) = \frac{\Gamma(y+1/\alpha)}{\Gamma(y+1)\Gamma(1/\alpha)} (\alpha\lambda)^y (1+\alpha\lambda)^{-(y+1/\alpha)} \left[ \frac{1}{1 - (1+\alpha\lambda)^{-1/\alpha}} \right],$$

$y = 1, 2, 3, \dots, \alpha > 0$

음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E(Y) = \lambda = \exp(X\beta), \quad \text{Var}(Y) = \lambda(1 + \alpha\lambda)$$

##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주 동안 무등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은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들을 동원하여 무등산 공원 현장에서 수행되었으며,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이 이용되었다. 총 6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고 590부를 회수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된 555부를 기초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하지만 인공프로그램의 특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중에서 단 한 개의 결측치도 포함되지 않은 478명의 응답자들만의 자료를 설정된 수요모델에 투입하였다.

## 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24]의 농촌관광 수요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인용되어, 종속변수인 지난 1년 동안의 국립공원 방문 횟수 1문항과, 인구통계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과 관련된 11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렇듯 적은 설문문항만으로 설문지를 구성한 이유는 국립공원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들만의 시간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설문지의 응답률과 정확성 및 방문객의 편의

성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IV. 실증분석

### 1. 모형추정

설명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와 같으며 [표 4-1],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Poisson 모형의 기술통계

변수 요약	변수	변수정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VISIT	지난 1년간 국립공원 방문횟수	4.61	7.21	
사회경제적 요인 (독립변수)	GENDER	성별	남성=1, 여성=0	0.41	0.49
	AGE	연령	40/50/60대=1, 기타=0	0.76	0.43
	OCCUPA	직업	전문직/자영업=1, 기타=0	0.25	0.43
	INCOME	소득	리커트 5점척도	416.1	282.6
	EDU	교육	리커트 5점척도	12.21	1.08
	SEASON	선호방문 계절	여름=1, 기타=0	0.14	0.34
	COMPANY	동반유형	직장동료/동호회=1, 기타=0	0.12	0.32
	FIVE	주5일 근무제	시행=1, 기타=0	0.39	0.49
	RESTSA	휴가 분산제	시행=1, 기타=0	0.18	0.38
	GROW	성장지역	도시지역=1, 기타=0	0.39	0.49
PRETOUR	선호관광 유형	혼합형(보는관광/체험관광)=1, 기타=0	0.44	0.50	

종속변수인 지난 1년간의 국립공원 방문횟수의 평균은 약 5회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까닭을 추정해보면 응답자들 중 무등산 근교지역에 거주하면서 매주 또는 매일 고정적으로 방문하는 응답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41%)보다 많이 선정되었으며,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전체 표본들 중에서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업군을 살펴보면,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수준은 평균 417만원 그리고 교육 년 수는 평균 12.21년으로 일반적인 교육수준은 고졸학력으로 조사되었다.

국립공원 방문선호계절을 보면 약 14%가 여름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직장동료/동호회 형태의 동반유형자들이 12%, 그리고 전체응답자들 중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은 39%에 해당되었다. 이 밖에 휴가분산제를 실시하는 직장종사자들이 1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장지역으로 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응답자들이 39%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호관광형태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혼합형 즉, 일반적인 관광과 체험관광형태가 혼재된 관광유형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각각의 분리된 관광형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보다 비율(44%)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 2. 모형추정결과

### 2.1 TP모형 추정결과

아래의 [표 4-2]은 절단된 포아송모형(TP)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4.2 방문수요모형추정결과(TP)

변수명	coefficient	t-value
GENDER	0.103	1.942*
AGE	0.264	3.949***
OCCUPA	-0.191	-3.099***
INCOME	-0.404D-04	-0.445
EDU	0.073	2.924**
SEASON	0.123	1.785*
COMPANY	0.248	3.603***
FIVE	0.193	3.622***
RESTSA	0.134	2.069**
GROW	0.112	2.118**
PRETOUR	0.278	5.374***
CONSTANT	0.309	1.589
log likelihood function	-1484.243	
Res Log Likelihood	-2065.327	
Model $\chi^2$	1162.168(p<.000)	
Number of obs	478	

추정결과에 대한 평가는 신뢰성 검정은 이론적 검정과 통계적 검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이론적 검정은 파라미터의 부호가 이론적으로 예상된 부호와의 일치성을 관찰하며, 통계적 검정은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하여 t검정을 수행하며, 전체모형에 대해서는 우도검정(likelihood test)을 한다. 모형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Model  $\chi^2$  값은 1162.168로 유의수준 1%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P모형의 추정결과는 과산포 검증을 수행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만일 자료가 과산포를 보이고 있다면 편이가 발생하여 그 추정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모형으로 TNB모형을 설정하여 설명변수의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추정결과는 TNB모형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따라야 할 것이다.

### 2.2 과산포 검증

자료에 대한 과산포 검증은 회귀검정과 과산포 파라미터  $\alpha$ 에 대한 가설검정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pha$ 에 대한 가설검정방법을 선택해서 수행하였다. 이것은 TNB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검증방법은 과산포 파라미터인  $\alpha$ 에 대해서 만약  $\alpha = 0$ 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음이항 회귀모형이 적합하지만, 반면에 채택되면 음이항 회귀분석은 포아송 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alpha = 0$ 이라는 귀무가설에 대한 가설검증이 유의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본 자료는 과산포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음이항 포아송모형(TNB)의 설정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단된 음이항 포아송모형의 추정결과[표 4-3]를 통해서 과산포 파라미터  $\alpha$ 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으로서 본 자료는 과산포를 내포하고 있다고 추정됨으로 PT모형보다는 TNB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함이 옳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모형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를 비교해보면 TP모형(-1484.243)보다 TNB모형(-1133.798)에서 그 값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 2.3 TNB모형 추정결과

설명변수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추정결과를 설명하자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연령(AGE)변수가 유의

수준 5%내에서 중요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는 직업(OCCUPA, 유의수준 5%, 음의 방향), 선호계절(SEASON, 유의수준 5%, 양의방향), 동반유형(COMPANY, 유의수준 1%, 양의방향), 주 5일 근무제(FIVE, 유의수준 10%, 양의방향), 그리고 선호관광형태(PRETOUR, 유의수준 1%, 양의방향) 등의 변수들이 방문객들의 국립공원 방문수요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4.3 방문수요모형추정결과(TNB)

변수명	coefficient	t-value
GENDER	0.569	1.479
AGE	1.185	2.431**
OCCUPA	-0.878	-1.971**
INCOME	-0.001	-0.361
EDU	0.056	0.402
SEASON	1.059	2.288**
COMPANY	1.513	2.866***
FIVE	0.767	1.791*
RESTSA	0.642	1.354
GROW	0.427	1.210
PRETOUR	1.051	2.618***
CONSTANT	3.146	2.455**
$\alpha$	0.602	8.184***
log likelihood function	-1133.798	
Res Log Likelihood	-1484.243	
Model $\chi^2$	700.8912(p<.000)	
Number of obs	478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무등산 국립공원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사회경제학적 변인을 조사함으로써 국립공원 방문수요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문객 특성을 밝혀냄으로써 국립공원 측에 방문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마케팅전술운용을 위한 목표시장을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자료 분석 측면에서 볼 때, 종속변수가 가산형으로 나타내어지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모형설정이 모형추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방문수요를 나타내는 비음정수형의 자료 분석에 적합한 포아송 모형을 설정하고 설명변수의 영향력

을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에 대한 편이를 제거하는데 보다 우수한 모형으로 음이항모형을 설정을 통해 설명 변수의 계수값을 다시 추정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AGE)에 있어서 40/50/60대가 20/30대에 비해서 국립공원 방문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직업군의 경우에는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그 밖의 직업군에 비해서 국립공원을 덜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여름을 선호할수록 국립공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함께 또는 동호회 모임 같은 동반유형이 국립공원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종에 근무하거나, 혼합형(일반관광형태+체험관광)관광형태를 선호할수록 국립공원을 자주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경우에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립공원을 자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으로 공원관리 측에서는 이들의 예상된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웰빙에 있을 것임으로 생태탐방로나 건강 먹거리,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젊은 연령보다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상시 비상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업군과 동반유형의 경우, 전문직이나 자영업자가 아니며, 직장동료나 동호회의 형태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이들의 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로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소음공해 및 쓰레기 투척이 발생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각별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내의 특정장소에 주의를 요구하는 알림판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동선을 적절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들은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연계관광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의 경유관광을 촉진함으로써 수요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의 선호방문계절은 여름철(SEASON, 5% 유의수준, 양의 방향)로 분석되었는데, 공원 측에서는

여름철에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원 내 계곡의 청결성, 이용 가능한 계곡 주변의 적절한 쉼터마련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메니티(amenity)는 공원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큼으로 유지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대한의 공원시설허용과 최대한의 규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현대관광의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국민여가시간 확대 및 가치관의 변화 등과 더불어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는 관광의 양적증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호하는 관광은 일반적인 관광과 체험관광을 혼합하여 구성된 혼합형 관광형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대가 대중관광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광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체험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형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중관광이 낳은 과거의 부정적 인식으로부터 멀리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국립공원의 주요수요자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40/50/60대의 노년층으로,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아닌 제 3의 직종에 종사하는 방문객들로 직장동료나 동호회와 같은 단체형태로 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특히 여름철에 혼합관광형태의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방문객들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타당성확보차원에서 국립공원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들은 주로 관광자원이 아닌 산림자원의 측면에서 수행되어졌는데, 그것들도 대부분 수요자 특성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경관자원유형[25], 조직몰입과 이직의도[26], 문화유적 가치추정연구[27] 등이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연구결과와의 비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설명변수의 선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인구통계적 변인들은 고정적이어서 그렇다 해도 사회경제적 변인의 경우,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것들의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상세하고 의미 있는 결과도출

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투입된 설명변수 이외에 현재의 관광흐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변수들의 고찰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일반화문제에 있어서 특정 개념이 아닌 방문객 행태를 설명하는 인구통계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변인의 경우, 연구대상의 지역적 위치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 모든 국립공원 방문객의 행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http://www.knps.or.kr>
- [2] C. E. Wu, *An exploratory study of Taiwanese senior's travel motivations and travel behavior*, Manhattan: Kansas State University Press, 2003.
- [3] 김영우, “방한 일본 여성관광객의 에스테틱 동기가 관광지 선택속성, 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컨벤션연구*, 제6권, 제2호, pp.107-131.
- [4] 소국섭, 이희찬, “이벤트관광 방문수요에 관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4호, pp.59-74, 2009.
- [5] 이승길, 김현, 유창근, “지역축제 방문객의 지출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4호, pp.177-187, 2006.
- [6] 광강희, 유창근, “스포츠레저 전시회 방문객의 구매의사결정요인”,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5호, pp.261-275, 2006.
- [7] 광강희, 소국섭, “카지노 서비스품질과 방문객의 행동특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제31권, 제6호, pp.91-113, 2007.
- [8] 장준호,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태도 차이연구”, *관광연구*, 제27권, 제3호, pp.337-355, 2012.
- [9] 연분홍, 오세이,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제약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1

권, 제1호, pp.357-366, 2012.

[10] 이희찬, "농촌관광시장규모 추정", 관광학연구, 제31권, 제4호, pp.155-176, 2007.

[11] 한상현, 조광익, "산악국립공원의 비 시장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주왕상 국립공원에 대한 개인별 여행비용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제21권, 제1호, pp.113-129, 2006.

[12] 송운강, "경포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추정: 가산자료모형을 이용한 개인여행 비용분석", 관광학연구, 제28권, 제1호, pp.11-25, 2004.

[13] 소국섭, "해양관광레저도시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가상시장가치 평가법(CVM)의 적용", 호텔관광연구, 제36권, pp.93-103, 2010.

[14] 광강희, "특수목적관광 유형 간의 대체보완 및 총 관광수요와의 영향관계; 상관관계분석 및 계량경제모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8호, pp.409-418, 2011.

[15] 백운일, "Tobit 모형을 이용한 지역축제 방문객의 지출영향요인; 두 지역 쌀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9호, pp.479-488, 2012.

[16] P. D. Allison,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Inc, 1999.

[17] M. Creel and J. Loomis,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tages of truncated count data estimators for analysis of deer hunting in California,"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72, pp.434-441, 1990.

[18] J. Englin and J. S. Shonkwiler, "Modeling recreation demand in the presence of unobservable travel costs: Toward a travel price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29, pp.368-377, 1995.

[19] S. Gurmur and P. Trivedi, "Excess zeros in count models for recreational trip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Statistics*, Vol.14, No.4, pp.469-477, 1996.

[20] P. Fix, J. Loomis, and R. Eichhorn, "Endogenously chosen travel costs and the travel cost model: An application to mounting biking at Moab, Utah," *Applied Economics*, Vol.32, No.10, pp.1227-1238, 2000.

[21] 소국섭, 이희찬, "절단된 포아송모형을 활용한 골프수요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 pp.9-27, 2007.

[22] 이희찬, 한진영, "전시관람수요의 결정요인: 절단된 가산자료모형의 적용", 관광학연구, 제28권, 제3호, pp.307-326, 2004.

[23] J. T. Grogger and R. T. Carson, "Model for truncated coun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6, pp.225-238, 1991.

[24] 이희찬, "농촌관광 수요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19권, 제2호, pp.131-146, 2005.

[25] 김장수, 장동호, 양해근,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형경관자원의 유형 및 활용방안", *한국지형학회지*, 제20권, 제1호, pp.85-96, 2013.

[26] 주효진, "개인과 상사, 개인과 직무, 개인과 조직 적합성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 pp.429-448, 2013.

[27] 강기래, 김희채, 이해주, 신현탁,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가치추정연구", *산림과학공동학술발표논문집*, pp.791-794, 2012.

저 자 소 개

광 강 희(Gang-Hee Gwak)

정희원



- 1999년 : 세종대학교 경영학 석사
- 2007년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 박사
- 2006년 ~ 현재 : 부산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호텔경영학, 카지노